“이 순간도 내가 부처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길”

4월 19일 영진 스님 법문

일곱 스님이 법상에 올라 간화선의 정수를 설한 일주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4월 19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에서는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태고 보우 국사’를 주제로 설했다.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담선대법회는 금아 혜국 스님, 남명 정찬 스님, 금곡 무여 스님, 일송 일수 스님, 금산 지환 스님, 금모 불산 스님, 봉정 영진 스님이 차례로 법상에 올라 간화선의 정통 수행법을 설하며 혼란한 시대 속 치유의 길을 제시했다.

영진 스님의 법문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봉정 영진 스님은… 출가 이후 지금까지 50년 이상 참선 수행의 길만 걷고 있다.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대승사 묘적암, 동화사, 백담사 선원에서 정진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조계종 종립 기본선원 초대 선원장을 역임했다. 2024년 조계종립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반갑습니다.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 주관으로 봉은사에서 국태민안과 세계 평화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회향일입니다.

앞에 여섯 대선사 스님들께서는 각자 처소를 상징하는 큰스님들의 말씀을 곁들여서 간화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선의 전체를 요약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570년 전에 인도 카필라성에서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어나셨습니다. 정반왕의 아들이고 마야부인의 태자셨죠. 그런데 궁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서 큰 결단을 내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6년 수행 끝에 대진리를 참구하고 처음 하신 말씀이 “기특하고 기특하다. 중생들의 본 마음자리에 여래의 원만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이겁니다.

중생 입장에서는 닦아야 할 것도 있고 얻어야 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깨닫고 난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그게 다 소멸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부처임을 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교화의 길로 나서신 겁니다. 교화의 길을 떠나시면서 부처님이 남긴 말씀이 경전이 되고, 부처님의 모든 행위와 위의가 계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禪)은 무엇이냐. 그 말을 하기 이전 소식으로, 본마음 바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고 보우 국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 고려를 통틀어 영향력이 컸던 분입니다. 이분은 ‘태고암가’라는 오도송을 짓고, 중국 절강성 후저우 천호암에서 임제 선사 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전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기 위해 청공 선사가 태고에게 “우두 법융(사조 도신의 제자)이 사조 도신을 만나기 이전 어째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태고가 “부귀하면 자손도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우두 법융이 사조 도신을 만난 이후에는 왜 꽃을 입에 물고 온 새가 없는가” 하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도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번뇌 망념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네 이름이 태고인데, 허공은 태고 속에서 나왔는가, 허공 속에서 태고가 나왔는가.” 공겁 이전의 태고인가 공겁 이후의 태고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너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이 “허공이 태고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합니다. 무변허공각소현발(無邊虛空覺所顯發), 즉 허공 속에서 내가 나왔기에 마음자리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체 모든 주인공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자리는 닦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말도 떠나고 글도 떠나고 분별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선을 말할 때 아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벌리는 순간 크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 안 하면 또 전달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물 뒤집어쓰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선은 본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진발심’ 일으켜 ‘참문’ 찾아 나가야

화두 또렷해야 파도에도 맑음 유지
대의단·대신근·대용맹으로 정진하길

이제 간화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는 주름도 없고 머리도 안 빠지고 창창했습니다. 세상은 무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봄을 몇 번이나 더 보겠습니까. 50살 기준으로 보면 50번도 못 봅니다. 금방이에요. 어떻게 만난 인생이고 어떻게 만난 불법인데 허송세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허송세월 보낼 수 없다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는게 발심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진짜 진발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엔 선지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걸 참문(參問)이라고 합니다. 시험 삼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조주 스님을 찾아가려면 1~2년이 걸렸습니다. 길도 없고, 통신도 안 됩니다. 보통 마음으로는 찾아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공부가 익어갑니다.

그렇게 조주 스님을 찾아가 묻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 “성품에 업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깨치라고 한 마디 딱 제시하셨는데, 깨치지 못하니깐 다음 단계인 어째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의심이 가슴 딱 박힙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가슴에 박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처님과 말이 다르네’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가슴에 의심이 박혀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왜 “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됩니다.

화두는 말 이전을 보는 겁니다.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念起念滅(염기염멸)을 謂之生死(위지생사)니 當生死之際(당생사지제)하야 須盡力提起話頭(수진력제기화두)호리니 話頭(화두)가 純一(순일)하면 起滅(기멸)이 卽盡(즉진)하리라

起滅卽盡處(기멸즉진처)를 謂之寂(위지적)이라 하니 寂中(적중)에 無話頭(무화두)하면 謂之無記(위지무기)요 寂中(적중)에 不昧話頭(불매화두)하면 謂之靈(위지령)이라 하나니

卽此空寂(즉차공적)과 靈知(영지)가 無壞無雜(무괴무잡)하야 如是用功(여시용공)하면 不日成之(불일성지)하리라

아주 간단한 말인데 간화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소멸하는 것이 생사라고 합니다. 숨을 쉬고 숨을 못 쉬고도 생사지만, 수행자들은 망념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생사다 이 말입니다. 생사의 즈음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진력해 화두들 들면, 화두에 몰입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곧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념이 소멸하고 망념이 다한 자리를 고요함이라고 하는데,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無記)라고 합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요즘 선명상에서 말하는 적적함인데,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선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물이 고요해지지만, 다시 바람이 일면 물이 흙탕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선명상을 최후의 공부 단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요한 상태서 화두를 놓치고 그저 편안하구나 하면 세월 그냥 가버립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가 있나 없나 점검하고, 화두를 놓쳤다면 다시 들어서 아주 뚜렷하게 화두만 남아 있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섞임도 없어서 다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맑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의심이 생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의심하는 거예요. 운동도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지듯이 화두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절로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더 나아가면 화두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 선지식이 제시한 말씀을 100%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신근입니다.

셋째 믿음을 넘어서 시작해야 합니다. 용맹심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겁낼 것도 없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땐 선지식을 보고 도움을 삼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선지식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자기 안목에 따라 보이는 겁니다. 눈 밝은 자의 모습으로 보면 세상에 선지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이 자성 속에 있지만, 차이점은 그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남들 잘 때 공부했고, 나는 남들 공부할 때 놀았다는 거죠. 이 차이지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선을 표방한 수행의 종단이고, 그 수행을 바탕으로 전법과 교화를 해야 합니다. 행정, 포교, 교화 등 여러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향해 있을 곳은 하나입니다. 백천 길의 물이 결국 바다로 향하듯, 혹은 고여 있다 넘어가도 결국 한곳을 향해 있다면 바다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 그곳을 향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중생놀음을 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분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길 발원합니다.

정리=김내영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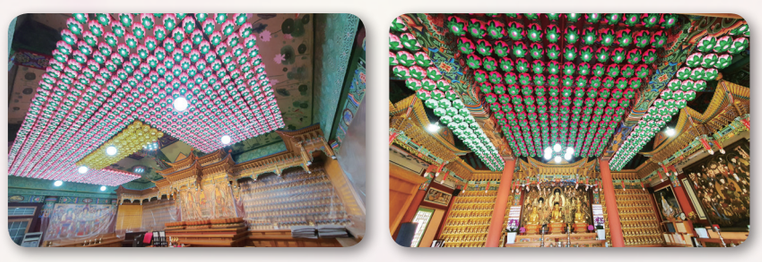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